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1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주관 :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황주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인 사 말



중앙회장 김 지 식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하여 오늘 긴급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한농연 회원 여러분과 농어업 분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국회의원님, 이만희 국회의원님, 황주홍 국회의원님, 한국농어민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달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농업계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가운데, 외교 국방 안보의 논리에 휘말려 자칫 한-미 FTA 개정협상이 농업분야에 불리한 졸렬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농업의 추가개방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유네스코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등 예상치 못한 돌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FTA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자칫 한-미 FTA 개정협상이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계를 포함한 한국 경제 전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관점과는 상관없이 외교 국방 안보의 논리에 휘둘려서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로 자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다고 재협상을 부르짖고 있는 배경에는 자국 산업 위축에 대한 강한 회복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으로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미국의 일방적 압력이나 요구를 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핵 위기와 사드 문제, 동북아의 긴장분위기를 최대한 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호혜적 협상으로 일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에 이를 일방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한-미 FTA 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뼈와 내장 등 위험 부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쌀에 대한 저율 혹은 무관세 쿼터(TRQ) 별도 배정 요구 등 농축수산물의 완전 개방을 강요하는 등 최악의 협상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 농업이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회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때, 한-미 FTA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대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잘 담아내어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 모두堂堂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의 취지와 필요성

- 11월 7일~8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8월 22일과 10월 4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에서 한-미 FTA의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양국 정부가 사실상 합의하였음
-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강조하며 한-미 FTA 완전 폐기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의 통상정보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가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농업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9월 7일 보도한 바 있어, 농업 분야에 불리한 협상이 전개될 우려도 매우 높음
- 이 때문에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의 농업 분야 피해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전술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압박할지를 가늠함으로써 ▲정부와 농업계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3:00 ~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주관 : 국회의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농식품위 간사), 국회의원 이만희(자유한국당 농식품위 간사), 국회의원 황주홍(국민의당 농식품위 간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한국농어민신문

□ 패널 구성(안)

- 좌장 : 윤석원(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표 1 :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 주제발표 2 :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지정토론 1 : 임정빈(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지정토론 2 : 허용준(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유통연구팀장)
- 지정토론 3 : 이창훈(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대미협력팀장)
- 지정토론 4 : 정용호(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 지정토론 5 :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

□ 행사 식순(아래 표 참조)

구분	시간	내용
간담회 식 순	13:00~13:10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3:10~13:30	○ 개회사 및 축사 -한농연 중앙회장, 농해수위 국회의원
	13:30~13:50	○ 주제발표1 :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13:50~14:10	○ 주제발표2 :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14:10~14:20	○ 장내 정리 및 휴식
	14:20~14:55	○ 지정 토론
	14:55~15:00	○ 장내 정리 및 폐회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주제 발표문 1

한-미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정 민 국 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Korea

한미 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정민국(FTA이행지원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nstitute

KREI

Contents

0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02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03

한미 FTA이행과 영향

04

향후 과제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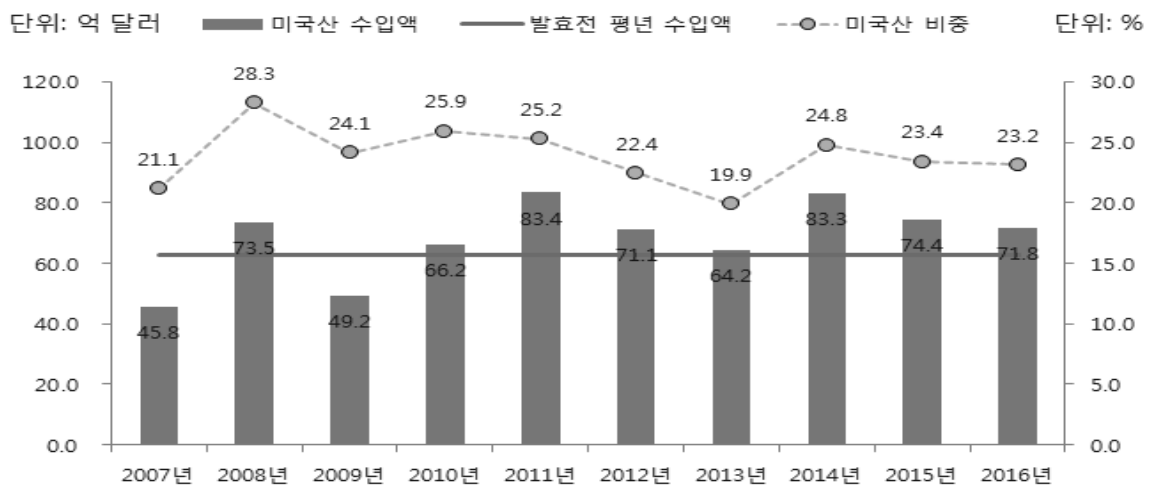
4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71.8억불(발효 전 평년 62.9억불 대비 14.1% 증가, 이행 3년차 이후 감소 추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부류별 추이: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곡물과 임산물도 감소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182	14.1	1.0	11.9	-13.8	-3.5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357	0.3	-1.5	19.6	-14.4	-1.4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20.9	30.2	-31.9	-3.5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628	91.4	5.9	2.1	3.1	0.6
-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850	78.5	27.3	16.8	7.5	0.2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1.0	9.5	-9.4	-1.9
임산물	795	793	852	918	878	717	-9.7	-9.5	-15.9	-21.9	-18.3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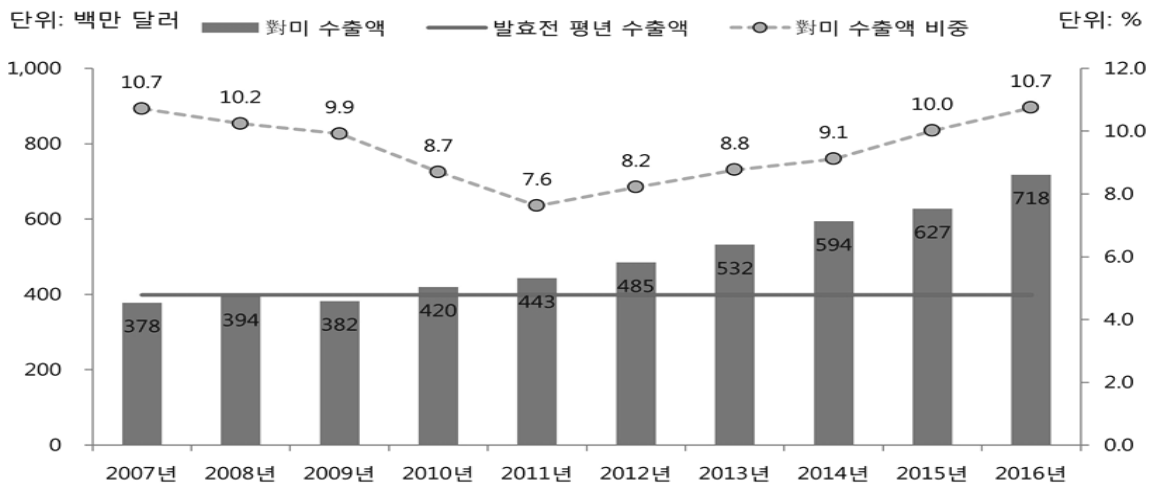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표 평균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2 對美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이행 5년차 對美 농축산물 수출액: 7.2억불(한·미 FTA 발효 전 평년 4억불 대비 80% 증가, 발효 후 연평균 10.3% 증가)

<對美 농축산물 수출 동향>



1.2 對美 농축산물 수출 동향

- 부류별 추이: 이행 5년차 對美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곡물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75.6%)이 매우 높은 수준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399	485	532	594	627	718	80.0	48.1	35.0	20.8	14.4
농산물	360	441	473	530	558	634	76.3	43.8	34.0	19.6	13.7
- 곡물	8	9	10	9	9	10	17.2	6.8	-1.5	6.6	6.2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82	41.8	21.6	10.7	10.2	10.9
- 가공식품	294	365	390	447	475	543	84.9	48.8	39.3	21.5	14.2
축산물	22	27	35	36	35	35	63.7	31.3	1.2	-1.9	1.0
임산물	16	16	23	28	34	48	195.7	193.2	105.1	72.4	40.9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1.3%(전년 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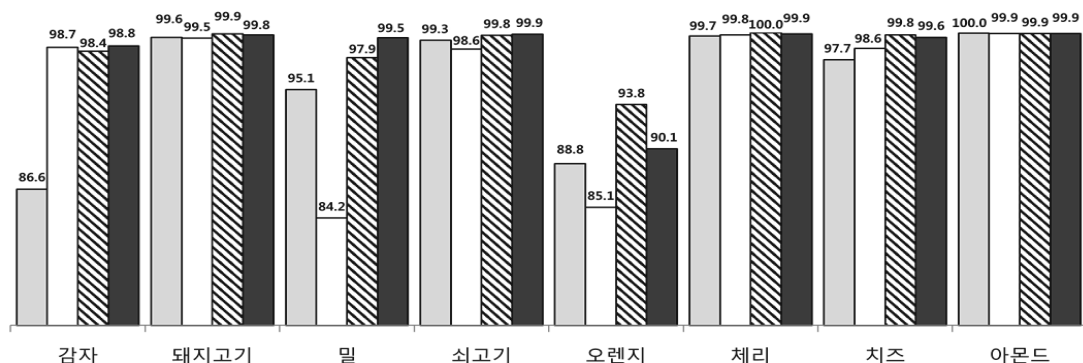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2.6(‘13) → 63.3(‘14) → 71.6(‘15) → 71.3(‘16)

* 미국산 농축산물 중 쇠고기 수입액(10.4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고(14.4%),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99.9%로 매우 높음

<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

단위: %

□ 2013 □ 2014 ▨ 2015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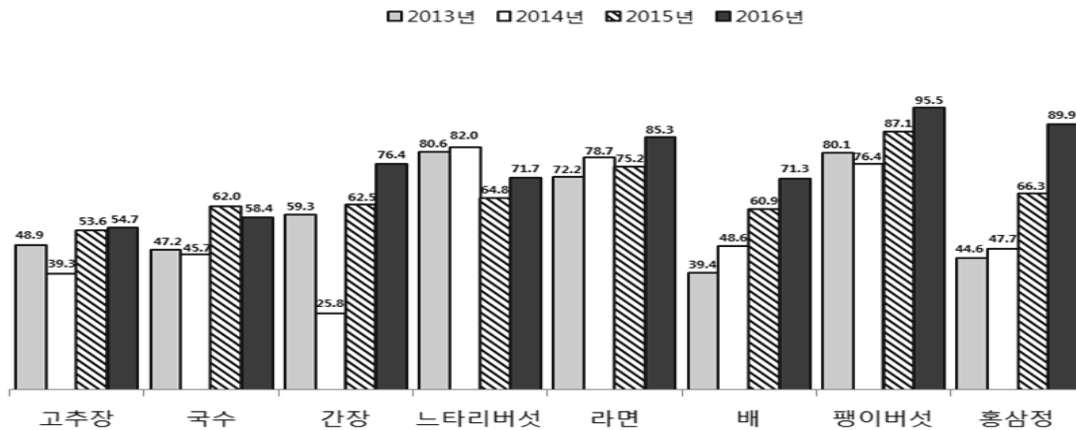
* 수입 규모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

1.3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對美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48.7%(전년 대비 0.9%p 상승)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6.7('13) → 46.2('14) → 47.8('15) → 48.7('16)

단위: % <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



*수출규모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

02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클 수입 실태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1 축산물

- 이행 5년차 미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82.9%, 수입량은 18.5% 증가
-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수입은 수입선 전환 등으로 최근 감소세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B)	2년차 (‘13)(C)	3년차 (‘14)(D)	4년차 (‘15)(E)	5년차 (‘16)(F)	발효 전 평년 대비(F/A)	4년차 대비 (F/E)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58.5*	29.1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31.3*	46.0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74.9	-13.6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51.8	-1.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84.3	-45.7
	수입량	39	54	45	65	11	7	-82.0	-33.9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199.8	-32.7
	수입량	13	32	43	64	55	40	207.9	-27.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315.7	-1.7
	수입량	0.3	1.9	6.3	8.0	5.7	6.1	2019.0	7.3
전체 축산물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9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18.5	5.1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량) 중 최댓값·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표 평균값임(다만 쇠고기는 2011년 기준)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1 축산물

- 2016년 쇠고기 협정관세율 : 미국 26.6%, 호주 32.0%
- 호주의 경우, 한·호주 FTA 발효(2014.12.12) 이후 협정관세율 적용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냉동·냉장쇠고기, 냉동갈비	40	29.3	26.6	24.0	21.3
호주	냉동·냉장쇠고기, 냉동갈비	40	34.6	32.0	29.3	26.6

- 2016년 돼지고기 협정관세율 : 국가별, 부위별로 상이
- 캐나다의 경우, 한·캐나다 FTA 발효(2015.1.1) 이후 협정관세율 적용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U (전년 7월~ 금년 6월)	냉동돼지고기	25	8.3	4.1	0	0
	냉동삼겹살	25	15.9	13.6	11.3	9.0
	냉장삼겹살	22.5	14.3	12.2	10.2	8.1
미국	냉동돼지고기	25	4.0	0		
	냉동삼겹살	25	0			
	냉장삼겹살	22.5	13.5	11.2	9.0	6.7

2.1 축산물

□ FTA 이행 5년차 미산 축산물 수입가격 관세율 하락 효과: 약 12% 추정

- 주요품목별 관세 하락 효과: 쇠고기 9.6%, 돼지고기 19.6%, 닭고기 8.3%

* 관세철폐시 가격 하락 효과: 쇠고기 28.6%, 돼지고기 20.0%, 닭고기 16.7%

<미국산 주요 축산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10,219	3,676	1,429
	FTA 발효(B)	9,241	2,955	1,310
관세율 하락효과(B/A)		-9.6	-19.6	-8.3
주요 축산물 평균		-12.0		

주 1) 쇠고기는 냉동·냉장 쇠고기와 냉동갈비, 돼지고기는 냉동 돼지고기와 냉장·냉동 삼겹살,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닭가슴·닭날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분석에 사용한 각 수입 품목은 미국산 수입 상위 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

3) 수입가격은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부위별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2.1 축산물(쇠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0% 상승, 전년 대비 11.1% 하락

* 미산 쇠고기 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상승
다만, 이행 5년차 미산 수입가격은 미국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하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20.0	-11.1
	수입단가(달러/kg)	4.9	5.13	5.79	6.96	7.10	6.29	28.4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0	37.3	34.6	32	29.3	26.6	-33.5	-9.2
호주	수입가격(원/kg)	7,338	8,428	8,217	8,300	9,181	8,967	22.2	-2.3
	수입단가(달러/kg)	4.67	5.34	5.36	5.74	6.03	5.85	25.3	-3.0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5,470	6,172	6,232	7,093	6,844	6,668	21.9	-2.6
	수입단가(달러/kg)	3.48	3.91	4.07	4.81	4.46	4.27	22.7	-4.3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5	219	1.4	-14.1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1.5	12.7	5.5

주 1) 수입가격은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냉장·냉동 쇠고기, 냉동갈비)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돼지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4.3%, 전년대비 14.7% 하락

*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2014년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 철폐와 냉동 목살 등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하락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4.3	-14.7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2.54	14.9	-13.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5	16	12	8	4	0	-100	-100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14.4	-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73	-2.8	-5.2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9	882	23.9	3.9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2.2	22.8	23.3	22	2.2

주 1)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피)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닭고기)

□ 이행 5년차 미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8.3%, 전년 대비 25.1% 하락

* 미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AI 영향 등으로 수입량 회복 지연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28.3	-25.1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03	-24.3	-25.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0	18	16	14	12	10	-50.0	-16.7
브라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2.7	-20.5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1.79	-25.4	-22.5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407	464	473	528	585	599	47.2	2.3
	1인당 소비량(kg)	9.77	11.60	11.50	12.80	13.40	13.90	42.3	3.7

주 1)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 등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 축산물(유제품)

- 이행 5년차 미만 치즈 및 조제분유 수입량은 FTA TRQ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 불구하고 3년차부터 감소, 수입단가가 낮은 EU·뉴질랜드 등으로 수입선 전환

* 탈·전지분유의 TRQ 초과 물량에 대해 176%의 고율 관세율 적용, 이행 5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 증량, 조제분유의 TRQ 물량은 FTA 이행 10년차부터 증량, 초과 물량 관세율은 10년간 단계적 철폐

<미국산 치즈·분유 FTA TRQ 및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치즈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7,879
	수입량	9,307	23,157	33,959	52,885	47,250	35,271
분유 (탈지+전지)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조제 분유	FTA TRQ	-	700	721	743	765	788
	수입량	158	266	141	136	82	50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만 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114%, 수입량은 62.6% 증가

- 오렌지, 포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체리, 석류, 레몬과 자몽 수입액은 감소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 과목별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91.4	28.8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58.3	42.4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267.4	-8.3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230.5	2.6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10	0.5	-44.9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11.4	-49.8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23	153.1	28.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98.0	24.7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1	305.3	-7.2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86.9	1.5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6	145.4	-13.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02.1	-16.3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463	114.1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218,786	62.6	21.6	

주 1) 석류는 기타과일 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모든 HSK 세번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2 과일

□ 2016년 오렌지 협정관세율 : 미국, EU 10%, 호주 20% + 계절관세 + TRQ 적용

수출국	수입 시기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비 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EU	3~8월	50	15	10	5	0	-
	9~2월		50				미국 TRQ물량: 2,898톤 EU TRQ물량: 40톤
호주	4~9월	50	25	20	15	10	-
	10~3월		50				TRQ물량: 20톤

□ 2016년 포도 협정관세율 : 국가별 관세인하 + 계절관세

수출국	세부 품목	기준관세율 (%)	FTA 협정관세율(%)				비 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신선	45	34.4	31.7	29.1	26.4	5~10월 15일
			6	0			1~4월, 10월 16일~12월
	건포도	21	0				-
페루	신선	45	45				5~10월
			0				1~4월, 11~12월
	건포도	21	10.5	8.4	6.3	4.2	-
호주	신선	45	45				5~11월
			18	12	6.0	0.0	1~4월, 12월
	건포도	21	0				-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 관세율 하락 효과: 24.1% 추정

- 주요 품목별 관세 하락 효과: 오렌지 26.7%, 체리 19.4%, 포도 31.0%, 레몬 23.1%, 파몽 23.1%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 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파몽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469	12,773	5,120	3,965	3,532	2,094
	FTA 발효(B)	1,810	10,300	3,531	3,350	2,717	1,611
관세하락효과(B/A)		-26.7	-19.4	-31.0	-15.5	-23.1	-23.1
신선과일 평균(%)		-24.1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2.2 과일(오렌지)

□ 이행 5년차 미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6.9%, 전년대비 12.1% 하락

* 미산 오렌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하락으로 수입가격 하락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월~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6.9	-12.1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1.4	22.8	-10.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50	30	25	20	15	10	-80.0	-33.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2.2 과일(체리)

□ 이행 5년차 미산 체리 수입가격은 발효전 대비 12.4% 하락, 전년대비 8.3% 하락

* 체리가격은 FTA 발효 이후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의해 영향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9	11,230	10,300	-12.4	-8.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8.9	5.0	-10.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4	0	0	0	0	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2 과일(포도)

□ 이행 5년차 미만 포도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9.5%하락, 전년대비 0.2%하락

* 포도 (계절)관세율은 이행 5년차('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계절 관세 적용시기(10월 16일~익년 4월)인 10~11월에 미국산 포도 수입 집중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10월 16일~익년 4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2,785	-28.6	-39.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9.5	-0.2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1.8	-24.0	-39.5
		계절관세	2.7	2.7	2.9	3.0	3.0	26.9	3.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6	-7.8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	-

주 1)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를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3 곡물

□ 이행 5년차 미만 곡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32.6%, 수입량은 22.7% 감소

* 미산 옥수수 수입은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브라질, 러시아 등)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세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 곡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139	-55.8	26.7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291	-25.1	-18.1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24	62.0	-22.0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225	68.3	-10.7
전체 곡물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3.5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131	-22.7	12.5

주: 전체 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3 곡물

□ 이행 5년차 미산 곡물은 대부분 FTA TRQ 물량으로 수입, 관세율 하락효과 작음.

* 주요 품목별 관세하락 효과: 옥수수 1.7%, 밀 1.8%, 대두 0.9%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옥수수	밀	대두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52	308	671
	FTA 발효(B)	248	303	666
관세하락효과(B/A)		-1.7	-1.8	-0.9
주요 곡물 평균(%)		-1.6		

주: 각 수입 품목은 식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3 곡물(옥수수)

□ 이행 5년차 미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5.4%(전년 대비 9.0%) 하락

* 미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가격이 더 크게 하락(국내 옥수수 수입선 전환)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 분		발효 전 평균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균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32	481	479	297	272	248	-25.4	-9.0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0.21	-23.5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팜콘용 ASG								
	물량(톤)	-	5,112	6,390	7,668	8,946	10,224	-	14.3
	관세(%)	630	601	572	544	515	486	-22.9	-5.6
	기타 옥수수 ASG								
	물량(톤)	-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	14.3
	관세(%)	328	313	298	283	268	253	-22.9	-5.6
브라질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0.20	-34.3	-8.3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0.20	-34.3	-8.3
러시아	수입량(천 톤)	0	0	0	225	372	942	-	153.0
	수입단가(달러/kg)	1.40	0.00	0.00	0.26	0.21	0.19	-86.1	-7.2
아르헨티나	수입량(천 톤)	4	127	117	1	118	201	4867.2	70.9
	수입단가(달러/kg)	0.54	0.31	0.30	0.95	0.22	0.18	-65.9	-14.7

주 1)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3 곡물(밀)

□ 이행 5년차 미산 밀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21.5%, 전년대비 14.7% 하락

* 미산 밀 기준 관세율(1.8%)이 매우 낮고,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영향은 제한적, 대부분 수입단가에 의해 영향을 받음. 최근 밀 수출국의 품작으로 수입단가가 전반적으로 하락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303	-21.5	-14.7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0.26	-19.9	-16.8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제분용	1.8	0	0	0	0	0	-100.0	-
		기타	1.8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호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1	329	295	-23.8	-10.2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0.25	-22.7	-12.5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1,052	25.2	-2.1	
캐나다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89	381	315	-35.3	-17.5	
	수입단가(달러/kg)	0.43	0.42	0.39	0.37	0.34	0.27	-37.5	-19.5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148	-11.0	-26.4	

주 1) 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수입량은 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14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2.3 곡물(대두)

□ 이행 5년차 미산 대두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47.0%, 전년대비 10.6% 하락

* 기준관세율이 낮고 대부분이 FTATRQ 물량 내에서 수입, 미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변동에 의해 좌우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257	795	862	796	744	666	-47.0	-10.6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0.55	-2.7	-12.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FTA TRQ	HS1201(톤)	-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	3.0
		관세율(%)	5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225	66.8	-10.7
중국	수입가격(원/kg)		858	1,143	1,265	1,174	1,392	1,180	37.5	-15.3
	수입단가(달러/kg)		0.64	0.97	1.10	1.06	1.18	1.02	57.9	-13.5
	수입량(천 톤)		153	124	55	75	27	37	-76.0	37.4

주 1)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 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2) 수입량은 대두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
2
3
4

한미 FTA 이행과 영향

<'13년~'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도 발동 현황>

단위: 원/ha

구 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3년치)	발동요건 충족국가(해당 FTA)
2013년	한우	13,545원/600kg	811,161원/마리	미국(2012)
	한우송아지	57,343원/마리	899,430원/마리	미국(2012)
2014년	수수	127,474	-	미국(2012)
	감자	1,270,814	-	EFTA(2006), ASEAN(2007), 인도(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고구마	8,570	-	ASEAN(2007)
	한우송아지	46,923원/마리	886,938원/마리	칠레(2004), 미국(2012)
2015년	대두	469,200	-	싱가포르(2006), 인도(2010), 미국(2012)
	감자	2,142,850	-	EFTA(2006), ASEAN(2007),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고구마	45,300	-	ASEAN(2007), 페루(2011), 미국(2012)
	체리	2,600,640	33,140,100	미국(2012)
	멜론	141,300	-	미국(2012)
	노지포도	1,133,670	58,976,610	인도(2010), 페루(2011), 터키(2013)
	시설포도	3,512,600	87,411,480	칠레(2004), ASEAN(2007), 미국(2012)
	밤	419	24,964,200	EU(2011)
	닭고기	19원/마리	561원/마리	칠레(2004), 미국(2012), EU(2011)
2016년	당근	98,970	-	ASEAN(2007), 미국(2012)
	노지포도	1,166,530	58,353,210	페루(2011), 터키(2013)
	시설포도	3,236,280	90,145,080	칠레(2004), 미국(2012)
	블루베리	15,667,540	165,704,880	칠레(2004), 미국(2012)
2017년	도라지	1,730,300	-	미국(2012), 중국(2015)

주: ()는 FTA 발효연도임.

<'13년~'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구 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전체면적/마릿수 (A)	신청면적/마릿수 (B)	소요금액 (천원)	비중 (%) (B/A)
2013년	한우 (마리)	667,670	602,836	8,165,000	90.3
	한우송아지 (마리)	329,685	299,749	17,189,000	90.9
2014년	수수 (ha)	1,514	610	80,312	40.3
	감자 (ha)	27,430	11,329	15,903,836	41.3
	고구마 (ha)	22,207	508	4,628	2.3
	한우송아지 (마리)	389,995	345,480	16,370,778	88.5
	대두 (ha)	74,652	13,130	6,161,049	17.6
2015년	감자 (ha)	21,472	10,827	23,314,430	50.4
	고구마 (ha)	20,515	624	32,443	3.0
	체리 (ha)	144	55	144,658	38.2
	멜론 (ha)	1,500	758	107,498	50.5
	노지포도 (ha)	12,690	9,670	10,974,753	76.2
	시설포도 (ha)	2,707	1,573	5,521,624	58.1
	밤 (ha)	25,485	1,867	783	7.3
	닭고기 (kg)	497,800,000	45,523	842,886	7.3
	당근 (ha)	3,114	1,054	104,579	33.8
2016년	노지포도 (ha)	12,346	9,511	11,084,587	77.0
	시설포도 (ha)	2,030	1,558	5,053,657	76.7
	블루베리 (ha)	6,155	1,410	22,273,643	22.9
2017년	도라지 (ha)	미산정	미집계	미집계	-

주 : 소요금액은 신청금액이며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3년~'17년 FTA 폐업지원과 폐업농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폐업 대상농가 및 폐업농가 현황			
		대상 농가 수 (A)	폐업농가 수 (B)	비중 (B/A)	해당 FTA
2013년	한우	119,000	18,260	15.3	미국
	한우송아지				
2014년	한우송아지	69,075	3,010	4.4	칠레, 미국
2015년	체리	299	13	4.3	미국
	노지포도	27,566	3,702	13.4	인도, 페루, 터키
	시설포도	7,314	681	9.3	칠레, ASEAN, 미국
	밤	15,335	144	0.9	EU
	닭고기	1,517	70	4.6	칠레, 미국, EU
2016년	노지포도	37,645	3,974	10.6	페루, 터키
	시설포도	5,592	514	9.2	칠레, 미국
	블루베리	15,140	1,490	9.8	칠레, 미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신청률 제고 및 농가수혜 확대 노력 필요
 - FTA 피해보전 농가신청률(면적 기준) : 고구마 3% 등
 - 농가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준비 철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등
- 수입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폐업에 따른 산업 위축 및 품선평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블루베리 폐업농가의 복숭아 재배로 복숭아 과잉생산 및 가격 하락 야기

구분		2016년 (A)	2017년 (B)	증감률 (B/A)
복숭아	재배면적(ha)	19,877	20,578	3.52
	판매가격(원/kg)	14,428	11,266	-21.9

주 1. '17년 재배면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판매가격은 04월~07월 월별 가락시장 도매가격(전체금액/전체반입량)을 평균한 값임.

- FTA 폐업지원금 상한 설정 검토
 - * 예시 블루베리 폐업지원금 최대 지원금액 : 8억 7천만 원(약 5.2ha, 정읍 모닝팜 농장)

□ 수출가공식품과 국내산 농산물 연계율 제고 및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 실효성 높은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주제 발표문 2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한 민 수 실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동향 정리

-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통상교섭본부)하였음
-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11월 10일(금) 09:30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임
-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한미 양국이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함. 아울러 미국측에 공식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에 규정한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전달했다”고 하여,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본격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음
- 11월 7일~8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경제도 핵심적인 논의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의 신속한 개정을 미국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음(11. 1 KBS 보도)

○ 통상 전문가들 중에서 정부(통상교섭본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잘못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부의 보다 철저한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례도 있음(아래의 내용은 GS&J인스티튜트 시선집 중 제243호(한-미 FTA 현재와 미래 :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보고서를 인용·참조한 것임)

-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실질적 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미 FTA 관련 미국측 규정에 대한 오해로 우리나라는 전략적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음
- 그 결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문제 등과 맞물려서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되어 우리로서는 최

악의 통상협상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음

-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협상이 시작된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 분야의 대가를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도록 압박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속히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과 농수산업간의 관세조정으로 이익의 균형을 꾀하는 식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 요구보따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찾지 못할 것이므로 농산물 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 개방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아래 참고 자료 참조)

- 미국의 통상정보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농업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9월 7일 보도했음
- 미국이 농산물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로 농업 부문을 압박하면서, 제조업·서비스업의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파상 공세로 나올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각개격파를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에 끌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마무리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당시 일본 정부가 쌀을 제외하고 한-미 FTA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2011년 비준된 한-미 FTA의 최종 협상 결과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아래 참고자료 표 참조).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의 파상공세가 강화될 경우 자칫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강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참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당시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합의 사항(요약)

- 쌀 : 미국산 쌀 7만톤, 호주산 쌀 8,400톤의 TRQ 제공을 합의
 - 발효 즉시 미국산 쌀 5만톤 호주산 쌀 6천톤의 TRQ를 제공하며, 13년에 걸쳐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증량기로 합의

- 단, 미-일 양자협상에서 일본을 미국산 쌀에 대하여 TPP와는 별도로 WTO TRQ 중에서 4.5만~5만톤 정도를 추가 할당하기로 함
- 일본은 민간에 의해 수입되는 쌀조제품·가공품의 관세를 5~25%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량이 적거나 관세율이 낮은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낙농품 : 숙성치즈에 대해서 16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블루치즈는 현행 29.8%의 관세를 11년차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가공치즈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탈지분유·버터는 뉴질랜드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함
- 쇠고기 : 현행 38.5%의 관세를 TPP 협정 발효 즉시 27.5%로 감축하고, 이후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감축하기로 합의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도입하되,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는 경우 폐지
- 돼지고기 :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품질에 따라 차등 감축 또는 철폐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되 종량세를 10년에 걸쳐 현행 482엔/kg에서 50엔/kg까지 인하하고, 종가세를 현행 4.3%에서 10년에 걸쳐 완전철폐
- 닭고기·계란 : 미·일 양국 정부는 닭고기 및 계란 등 약 40품목 중 대부분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
- 밀·보리 : 일본은 정부가 수입관리하고 있는 밀·보리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기로 합의
- 규범 :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채택·유지 금지, 국영기업의 수출독점권 철폐, TRQ 관리운영 규칙 투명성 강화,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 인정,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WTO와 별도의 단계적 해결 절차를 TPP 내에 두기로 합의

○ TPP 일본 협상 결과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양허안 비교표

품목	TPP(일본)	한-미 FTA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 추가 제공(對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TRQ : (첫해)5만톤→(13년차)7만톤 - WTO TRQ : 4.5만~5만톤 추가 할당 (對 미국) - TPP TRQ : (첫해)6천톤~(13년차)8,400톤(對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 제외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세 38.5%→9%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7.5%→(10년차)20%→(16년차)9% •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 없을 경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후 15년 철폐 •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7만톤→(10년차)32만 4천톤→(15년차)35만 4천톤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고 품질에 따라 차등 감축 또는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 (현행)482엔/kg→(첫해)125엔/kg→(50엔/kg(10년차 이후)) • 세이프가드제도 도입해 수입급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 100엔/kg→70엔/kg - 종가세 : 4.0%→2.2% ※ 발효 이후 점차 낮아지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 삼겹살 및 목살 :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8,250톤→(10년차)13,938톤 • 냉동 삼겹살 및 목살 : 2014년까지 철폐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닭 : 발효후 12년 철폐 • 냉장절단육 : 10년 철폐 • 냉동다리 : 10년 철폐 • 냉동가슴·날개 : 13년 철폐
낙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감축 및 TRQ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성치즈 : 발효후 15년 철폐 - 블루치즈 : (현행)29.8%→(11년차)14.9% - 탈지분유 : (첫해)2만 659톤→2만 4,102톤(6년차 이후) - 버터 : (첫해)3만 9,341톤→4만 5,898톤(6년차 이후) ※ TRQ는 생유 환산 중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 12~15년 철폐 • 탈지·전지분유 : 현행관세유지+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차)5,628톤→매년 3% 복리로 증가 • 버터 : 10년 철폐+TRQ • 치즈 : 15년 철폐+TRQ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 유지 : (현행)55엔/kg • TRQ 신설(미국, 호주, 캐나다에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19.2만톤→(7년차)25.3만톤 • 수입 차액의 45%는 삭감(9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철폐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 유지 : (현행)39엔/kg • TRQ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5만톤→(7년차)6.5만톤 • 수입 차액의 45%는 삭감(9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맥아(볶지 않은 것) : 15년 철폐+TRQ • 그 외 : 5~10년 철폐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채택·유지 금지, 국영기업의 수출독점권 철폐, TRQ 관리운영 규칙 투명성 강화,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 인정,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WTO와 별도의 단계적 해결 절차를 TPP 내에 두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 15년 철폐+TRQ • 고추 : 15년 철폐+TRQ • 감귤 : 15년 철폐 • 사과 : 10년 철폐+TRQ • 배 : 10년 철폐

※ 출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14호(2015. 10. 20)를 인용,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현행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 결과의 문제점(전형적인 불평등 조약)

- 작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200만 달러임.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 1,800만 달러였음. 농업 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전 5년간 평균 59억 달러였던 것이, 작년에는 65억 달러로

증가한 것임(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참조)

- 작년 기준 농산물이 37억 2,300만 달러 적자였고, 축산물은 20억 7,300만 달러, 임산물은 6억 6,900만 달러 적자였음. 협정 이행 연차가 늘어날수록 대미 수입물량과 금액이 증가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돼지고기(2022년)와 쇠고기(2027년)는 관세율이 0%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의 침체와 붕괴마저 우려됨
-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의 발동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까다로운 점도 문제임. 보면 우리나라는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 등 30개 농축산물에 ASG를 발동할 수 있지만 ASG가 발동할 물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발동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실정임. 예를 들어 한-미 FTA 발효 직전(2011년) 6만 2천t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2016년에는 16만 9천t으로 늘어 국내 한우농가에 큰 타격을 줬음.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ASG가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인데, 2017년 기준 발동물량이 30만t으로 매우 높게 설정됐기 때문임
- 돼지고기의 경우 발동 부위가 전체 수입량 중 5% 정도에 불과한 냉장육으로 한정돼 있음. 과일 가운데 ASG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사과뿐임
-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를 장기간에 철폐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다량의 무관세쿼터를 내줬음. 그런데, 무관세쿼터가 매년 3%씩 복리로 늘어나면서 미국산 낙농품 수입량은 FTA 발효 전보다 2배로 늘었음.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시 가공업체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1대 3.5 비율로 사용할 때만 무관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뒀음

○ 한농연의 요구사항

- 한-미 FTA 개정협상시 미국측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관세 즉각 철폐,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무관세 쿼터 확대,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 완화 등)가 제기될 경우, 통상당국 및 농식품부 등이 한-미 FTA 협정 자체의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은 물론, 한-미 FTA 협상 결과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었던 농업 분야는 이번 개정협상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해야 함
-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우리

나라 농업 부문의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해 온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기준의 개선은 물론 ▲무관세쿼터 배정 등의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2016년 일본의 TPP 협상 결과 수준만큼의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